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46>

같다 다르다 말하지 말라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부처(佛)이고 마음(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너는 마음이고 나는 부처야. 받들어 모시고 모시지 않는 것은 스스로 알아서 해라.”
 학승이 말했다.
 “스승은 없지 않으나, 받들어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럼, 내가 나를 교화해 보.”

問 如何是佛心
 師云 你是心我是佛 奉不奉自看
 學云 師即不無 還奉得也無
 師云 你教化我看

<화엄경>에서는 ‘삼불급중생 시삼무차별(心佛及衆生 是三無差別)’이라고 했다. 마음·부처·중생이 셋은 같다는 말이다. 학승이 부처와 마음에 대해 물은 것에 조주 스님은 누구든지 중생을 교화하면 그가 곧 부처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다. 중생이 곧 부처이다.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길을 일러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곧 부처이다. 좋은 선생을 부처로 존경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선문(禪門)의 뜻이다.
 조주 스님은 범양의 칭호에 대해서는 “나는 범왕이 아니다”라며 한 없이 겸손함을 보였지만 부처라는 칭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스스로 부처라고 말했다. 마음에 차별심이 없으면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부르던지 개의치 않는 법이다. 조주 스님은 스스로에 대하여 때로는 ‘발가는 노예’라고 했고, 때로는 ‘수고우(발가는 소)’라고도 했지만, 여기서는 스스로 ‘부처’라고 스스로 없이 말했다. 우주가 나이고 내가 곧 우주이다. 조주 스님은 ‘나’를 무엇이라 부르건 상관없는 대자유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

학승이 물었다.
 “법신·보신·화신 삼신불 중에 어느 것이 본신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된다.”
 問 三身中那箇本來身
 師云 關一不可
 부처님은 일신(一身)이면서 다신(多身)으로

나타나 중생을 제도한다. 부처님이 하는 일을 3가지로 압축해 표현한 것이 삼신불이다. 법신은 범성신이고 진리의 담체이다. 보신은 중생이 원하면 언제라도 나타나서 구원해 주는 부처이다. 화신은 중생의 교화교육을 담당하는 부처이다. 석가모니불은 화신불이다. 삼신이지만 크게 보면 하나의 부처이다.
 삼신 중에 어느 것이 본신일까? 이것 어리석은 질문이다. 사람도 여러 일을 하듯 부처님도 많은 일을 한다. 그 중에 하나를 들어서 “이것이 본신이다”고 말할 수는 없다. 법이 곧 본신이고, 보신이 곧 본신이고, 화신이 곧 본신이다. 하나라도 빼 먹으면 부처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삼신이 곧 본신이고, 우주가 곧 본신이다.

부처는 다신으로 나타나 중생 제도 위·아래 없는 게 법이니 서열도 없어

학승이 물었다.
 “이 땅에서는 누가 조사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달마가 온 이후로 이 땅은 모두 다 조사이다.”
 학승이 물었다.
 “화상께서는 몇 대 조사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는 서열에 들어가지 않아.”
 학승이 물었다.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 귓속에 있어.”

問 未審此土誰爲祖師
 師云 達磨來這邊總是學云 和尚是第幾祖
 師云 我不落位次
 學云 在什麼處
 師云 在你耳裡

선(禪)은 부처님으로부터 6조 혜능까지 한 사람이 대표가 됐다. 그러다 혜능 스님 이후로는 여러 사람에게 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조주 스님은 이 땅에 들어와서는 누구든지 조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혜능의 손자가 되는 마조 스님은 여러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뛰어난 제자는 서당·납전·백장이다. 마조 스님이 말하길, 선(禪)은

백장으로 이어가지만 이 중에서 납전이 홀로 뛰어난 인물이라고 했다. 조주 스님은 그 납전 스님의 법을 이었으므로 당연히 육조 혜능 계열의 조사이다.
 그러나 조주 스님 자신은 본 문답에서 서열이 없다고 했다. 철저히 선적인 대답을 한 것이다. 위도 아래도 없고 시간도 없는 법인데, 거기 무슨 서열이 있겠느냐는 뜻이다. 과연 선사다운 답변이다. 요즘 앞 다투어 큰 스님의 인가를 받았다고 세상에 공표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번 의미해볼 만한 대답이다.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하고 묻는 말에, “자네 귓속에 있어”라고 대답한 말이 의미심장하다. 본 <조주록> 초반 행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었는데, 계류의 잔 물을 마실 때는 어떠한가 묻는 말에 “쿡구멍으로 들어간다”고 대답했다. 이 말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본 남자의 사족은 다음과 같다. “그곳은 너무 넓어서 주객(主客)이 보이지 않는다.”

학승이 물었다.
 “극히 적은 차이(差異)가 있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하늘과 땅 정도의 차이로 벌어진 거야.”
 학승이 말했다.
 “극히 적은 차이(差異)도 없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하늘과 땅 정도의 차이로 벌어진 거야.”

問 毫釐有差時如何
 師云 天地懸隔
 云 毫釐無差時如何
 天地懸隔

부처의 경지에 완전히 다가간 것은 아니지만 거의 근접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여기에 대해 조주 스님은 약간의 차이라도 나면 천지현격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저히 도(道)에 근접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약간의 차이도 나지 않을 때는 어떠할까? 즉, 부처의 경지와 똑같은 것이라면 어떠할까? 여기에 대해서도 조주 스님은 역시 천지현격의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왜일까? 도(道)는 벌어진 것도 없고 같아진 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같다, 다르다 말하지 말라. 한 생각이라도 일으키면 천리만리 어긋난다. 무물선원 선원장



김호규 교수의 선어록 해제 26

십우도(十牛圖)

소를 주제로 대승보살도 여정 그려

<십우도>는 소를 주제로 해 수행과 깨침과 교화의 여정을 열 장의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서 소는 각자의 마음을 비유한 것인데, 소의 비유에서 소를 파악해 그것을 잊어가는 과정과 검은 소를 흰 소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과정은 그 출발점이 똑같지는 않다.
 그러나 십우도는 소에 대한 그림과 그에 상응해 계승으로 표현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수많은 <십우도> 가운데 텍스트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3종이 기본이다.

1. <주정주양산관악화상십우도송병서> 1권. <선문제조사개송> 권4 수록. 그 열 단계의 순서는 십우(尋牛)·견적(見跡)·견우(見牛)·득우(得牛)·목우(牧牛)·기우귀가(騎牛歸家)·망우존인(忘牛存人)·인우구망(人牛俱忘)·반본환원(返本還源)·입전수수(入塵垂手)이다.
2. <신각선종십우도> 1권. 그 열 단계의 순서는 미목(未牧)·초조(初調)·수제(受制)·회수(回首)·순복(馴伏)·무애(無碍)·임운(任運)·상망(相忘)·득조(獨照)·쌍민(雙泐)이다.
3. <보명선사목우도송부제대선사화송> 1권. 명대의 운서주공(雲棲株宏)이 1609년에 서를 붙여 간행한 것이다. 여기에 후에 15명이 화승을 불었다.

유를 터득해 법인이 성취된 경지이다. 제9의 반본환원은 구경의 묘각지에 올라 수행이 완성된 경지이다. 제10의 입전수수는 깨침의 완성으로서 중생교화에 매진하는 경지로서 자리와 이타의 실현이다.
 관암 <십우도>의 성격은 화승(和頌)을 붙인 자원 화상의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무릇 제불의 진실한 근원은 곧 중생에게도 본래부터 구비돼 있다. 그러나 그런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삼계에 빠져 허덕이고 있다. 이에 그 도리를 깨치면 곧바로 사생을 벗어난다. 때문에 제불에게는 그 나름대로 제불이 된 이유가 있고 중생에게는 나름대로 중생이 된 이유가 있다. 곧 본분상으로는 중생과 부처, 미혹과 깨침 등의 분별과 대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증상으로는 미혹과 깨침, 중생과 부처가 있다. 때문에 부처님은 중생을 불쌍하게 여겨 널리 여러 갈래의 방법을 시설했다. 이론적으로는 방편과 진실을 시설했고, 접화수단으로는 돈오와 점오를 시설했고 추잡으로부터 미세에 이르는 방법과 얕은 곳으로부터 깊은 곳으로 이르는 길을 시설했다. 그리고 최후에는 푸른 연꽃과 같은 눈동자를 감박여서 마하가섭의 파안미소를 이끌어냈다. 이로써 만약 그 도리를 터득하면 근원적인 원리를 조월하고 구체적인 방식을 초월한 모습이 마치 허공을 날아가는 새



십우도(十牛圖) 중 기우귀가(騎牛歸家), 송림사 승보전

의 길에 흔적을 남지 않듯이 자유롭다. 그러나 그런 상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연구에 얽매어 미혹한 모습이 마치 신령한 거북이라 할지라도 진흙에다 꼬리의 자국을 남기는 것과 같다.”

이에 근래에 청거호승(淸居皓昇)이 중생의 바탕을 살펴보고 질병에 맞는 약을 처방했다. 곧 소를 치는 모습에 비유해 그림으로 그려서 각각의 수준에 맞도록 가르침을 베풀었다. 처음에는 까맣던 소가 점차 흰 소로 변해가는 것을 보아서 수행이 완성되지 못했음을 드러냈지만 점차 완전히 길들어 완성이 되어가는 진실에 이르러서 그 능력이 점점 완숙해짐을 드러내었다. 그리하여 최후에는 사람과 소의 모습이 사라지는 경지에 도달해 마음과 교법까지도 모두 사라지는 경지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그 도리에 대해서는 이미 근원까지 철저히 궁구했지만 그 교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중생교화를 위한 행위에 매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화근지는 잘못 생각해 단견의 허무에 빠지지 않을까, 혹은 상견의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을까 염려해 청거선사는 <목우도>를 보여주었다.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누워하는 참선 + 와선체조

와臥禪선

중단전자크라(명치, 화병, 상기병)단전 시원하게 ~ 뚝어 줌

호흡수월, 몸뚱아리 초월, 공(空)삼매 즉석 체험 머리에서 잠생각 망상이 깨미때 별뿔처럼 빠져나감 엄청난 오로라 진신에 꼭 찬 황홀경 누구나 체험 진짜 달콤한 감로침! 행복감 체험

피로회복 · 면역력증대 체험 100%

발 무릎 꼬리뼈에서 냉기, 병기, 나쁜 기운 빠져나감

스트레스해소 · 우울 · 불안 · 고민해소체험 100%

▶대상 : 누구나, 스님, 선생님, 교수님, 연구직, 예술가 템플스테이 운영자, 출가예정자, 참선, 위빠사나 고시생, 수험생, 유능한CEO, 사회지도자

☞아나빠나사따 수행이 잘 안 되시는 분
 ☞심장박동, 생각, 마음 보기 뚜렷한 체험이 없는 분
 ☞참선, 염불, 절, 명상수행의 진전이 없으신 분
 ☞목, 뒷골, 어깨, 명치, 단전이 저절로 풀리고, 뽕뽕 체험
 ☞꿈 많고, 자다깨다 반복 잠에서 빨리 깨어나지 못하는 분
 ☞스트레스지수 면역력 콜레스테롤 엔돌핀, 토탄민, 세로토닌 검사에 보시면 100% 놀라운 확신

♣청견스님 직접 교육 수행지도♣

☎ 02)456-0035 (서울·부산·대구·광주법당)

www.법왕정사.kr (와선특강)

▶매주 화요일·절교육, 2011년 1월부터 수행템플스테이 운영

강릉 인월사 담마선원

위빠사나 집중수행 안내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는 불교명상법인 위빠사나 집중수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불교인 뿐 아니라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푸른 솔숲 향기와 목조 황토방 선원에서 깨달음의 휴식을 가져 보십시오”

일 정	지 도	인 원	대 상
2011년 1월 15일 - 1월 21일 [6박 7일]	우포다나 사야도	15명 (선착순)	일반인

■ 수행장소 : 강릉도 강릉시 경포 저동 6-2번지 인월사 담마선원 (황토방에 욕실과 화장실 완비)

■ 수행내용 : 좌선, 행선, 일상생활수행 매일 수행 점검을 위한 사야도(큰스님)의 면담과 법문이 있음

■ 입제 및 회향 :
 • 시작 날 - 1월 15일 오후 5시
 • 끝나는 날 - 1월 21일 오전 12시

■ 참가비 : 20만원 (우체국 201780-01-001463 예금주: 담마선원)

■ 준비물 : 수행에 편한 복장, 방한소용, 필기구

■ 문의 및 접수 : ☎ 담마선원 033)644-1686 email : dhamma53@hanmail.net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시공.

사찰 전기공사 상담대환영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예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